

# [ 종합·해설 ]

## 美, 리스 아시아 순방 이후 외교 변화 조짐

# “북 행태 바꾸면 금융제재 해제 할 수도”

북한의 핵실험 관련, 미국의 대북 및 대동북 아 외교 전략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고집하면서도 우회적인 달래기를 시도하는가 하면, 미국 주도의 일방외교에서 전환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승리가 접착점에 따라 외교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달래기 및 일방외교 포기(?) = 강경 일변도였던 미국의 태도가 콘돌리자 리스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 이후 두드러지게 부드러워지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6자 회담을 고집하면서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불법 활동을 중단할 경우 금융 제재와 외교적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대표적 강경파인 잭 크라우치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23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일본 아사히 신문이 공

## 中과 접근- 日과 동맹- 한국과 거리두기 불턴 내달 방한 ‘제재 이행’ 촉구할지 주목

동 주최한 미·일관계 세미나에서 “미국이 정말 강경하다면 북한이 위태, 돈세탁 등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6자회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6자회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미국의 태도 변화는 북한을 지원해 온 중국이 태도를 바꿔 안보리 결의 이행의 뜻을 명백히 하는 등 북한 고립화를 위한 외교 환경이 조성돼 대북 압박에 성과가 예상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외교지도 다시 그리기=이같은 대북정책의 변화기류는 미국의 대동북이 외교전

략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중국의 역할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 평가하면서 러시아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과는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적잖은 불만과 압박을 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눈에 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21세기 최대 우방으로 부상한 일본과는 동맹 관계 수위를 더욱 높여가면서 한국과 러시아와는 협력 속 긴장을 유지하는 구도로 가져가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

온다.

◇중간 선거 압력=이같은 미국의 전략 변화는 다음달 7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집권당이 공화당이 참패할 것이라 예측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차피 선거 패배 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데 따른 것이라 지적이다. 때문에 일부 공화당 중진의원마저, 기존의 양자 회담 거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 관련 전문가들의 양자 회담 압력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주요 역할을 한 존 불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다음 달 초 서울에 올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턴 대사는 특히 안보리 결의 이행을 놓고 미국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제재 참여를 촉구할 것으로 보여 한미간 협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사거리 1,000~1,500km 크루즈 미사일 개발 중”

### 정부 소식통 밝혀



정부가 사거리 500km, 1천km, 1천500km 크루즈(순항)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최근 사거리 500km 크루즈 미사일 ‘천룡’(天龍)에 이어 1천km, 1천500km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시험발사가 성공한 ‘천룡’은 이르면 연내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1천km 크루즈 미사일은 아직 시험 단계에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1천km 크루즈 미사일은 여러 차례 성능 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전 배치되려면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 기술로 개발 중인 1천km 크루즈 미사일은 시험 결과, 원형공산 오차(CEP: 목표물에 근접하는 거리)가 5m 범위내에 이를 정도로 정확도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크루즈 미사일 개발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01년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탄도 미사일 개발은 제한돼 있지만 크루즈 미사일의 경우에는 ‘탄두중량 500kg’ 이상을 넘지 않으면 사거리에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다. /연합뉴스



군사 장비를 실은 것으로 의심받은 북한 선박이 홍콩에서 검문받은 뒤 억류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홍콩 당국이 북한 선박을 검색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유엔 결의안에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결의안 이행 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해상 검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검색이 유엔 결의안의 조치가 아닐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콩은 올해 들어 이번 사례까지 포함해 9척의 북한 선박을 검색했고 이 중 6척을 압류했는데 이는 홍콩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북, 박근혜 등 여야 공동특사 원해”

### 우리당 최성 의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은 24일 “북·중 및 남·북 관계분야의 핵심적인 위치에서 북한의 참사급 인사로부터 여야 영수가 함께 방북, 공동특사단을 꾸린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며 여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표가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주중대사관 국정감사를 위해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 4시간 동안 북한 인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 같은 대화를 나

눴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 인사는 참여정부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계가 있고 야당의 지지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여야 공동 특사단을 거론했다’며 ‘북측의 참사급 인사로부터 여야 영수가 함께 방북, 공동특사단을 꾸린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며 여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표가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북측이 무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북측 인사는 여야 공동특사단이 올 때 김 전 대통령 같은 분이 고문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제사회 北 옥죄기 시작됐다

## 홍콩, 북 ‘강남1호’ 억류... 中 태도 강경 을 9척 검사... 국내법 집행 차원 일수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718호 채택 이후 처음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과 억류가 이뤄지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옥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검색을 진행한 주체가 홍콩이라는 점에서 해상검색에 대해 다소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의 태도가 보다 강경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홍콩이 국내법에 따라 올해 들어서

만 북한 선박을 9차례나 검색했고 선박에서 의심을 살만한 화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지난 22일 홍콩에 도착한 2천355톤 북한 화물선 강남1호는 23일 홍콩 해사청 검사선의 검색을 받은 뒤 홍콩 당국에 억류 조치됐다.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채택된 지 8일만이다.

특히 이번 검색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주말 홍콩을 방문한 직후에 이뤄진 조치여서 주목되고 있다.

힐 차관보는 홍콩 마카오 은행의 북한자금 동결 등 금융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홍콩을 방문했다고 밝혔지만 그의 방문은 미국과 일본 정보당국이 군 장비를 실은 북한 선박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 배가 홍콩으로 향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미국이 강남1호가 홍콩에 입항하자 유도미사일을 탑재한 프리깃함 게리호를 홍콩에 불러들여 물리적 충돌에 대비했다는 점도 미국이 이번 검색에 깊이 관여했다는 정황으로 볼

## 정동영 “정치인 북 핵 위기의식 공유 못해”

여권 내 대선 예비주자 가운데 한 명인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24일 “북한의 핵 실험은 6·25 이후 최대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의장은 이날 발행된 전북 도민일보사와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사태의 당사자는 우리 국민인데 정치인들이 위기 의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최근 김근태 의장의

“방북 출판” 과문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정치인이 아니라면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대선 출마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현재 당이 위기에 놓여있는 만큼 출마 여부를 밝힐 단계가 아니다”면서 “2~3개월 후인 내년 초에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우측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직통 : (062)227-9600, 220-0524, 0525  
FAX: 227-9500

광주은행 : 001-107-228160 ◆ 농협 :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서울본원 1차 최종합격생 123명  
KPA회원 2006년2차 필기합격자 총 319명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랑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1일·15일 개강 (수시접수)

- 6개월회원제 / 1년 회원제  
오전이론+저녁이론강의+오후실전문예풀어+기초영어 모두 수강 가능
- 2개월 종합반-오전이론+저녁이론 강의+기초영어 수강
  - 1개월 무료 동영상제공(회원제)
  - 전용자습실 사용 가능
  - 점독서실, 고시원 할인 혜택
  - 시험합 무료사용 가능
  - 매주 토요일 기초영어특강 수강
  - 심화반 선별 맞춤 수강
  - 매일 실전문의고사 실시(OMR카드 성적처리-개인성적표 제공)

\* 차별화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개론 김재규 교수	형법 조태영 교수	형사소송법 윤경근 교수
수사 오수평 교수	영어 오순아 교수	영어 김지선 교수

**김재규 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남여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공무원 아간반 첫진도**

공무원 이론반 첫진도 개강 **11월1일**

★ 행정/사무/교육행정/검찰/교정직 -주/야간반 운영★

전공과 합격을  
실패는 강박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칼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찜질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광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칼레오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안삽하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 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062)262-0101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 - 김영**

호남유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대비 강좌  
MEET/DEET 대비반 개강

일반, 학사, 사대편입  
편입대비 영어 기초반

약대, 한의대편입  
생물, 화학, 한문, 한의학

교육대편입대비 - 김윤신 교육학

**김영대학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개강:11월1일 ☎ 227-8088